

#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쑥쑥' 20억 원 달성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10개월 만에 매출 20억을 달성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7월 20일 기준 20억의 매출 실적을 올리며, 월평균 2억이 넘는 운영 호조를 보이고 있다.

로컬푸드 매장에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당일 생산된 신선농산물을 농가에서 직접 출하하고 있으며, 개장이후 참여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관내 400여 농가에서 500여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직매장 매출액의 90%는 생산농가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중소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특효를 거두고 있다. 출하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농가소득으로 직접 지급되다 보니 지역의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우수한 먹거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은 연중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이종하우스 보급과 생산자 조직화, 출

하품목 확대 등푸드플랜 생산자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소농위주의 다품목 출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직매장 출하 품목은 매일 농약잔류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매일 소비자 초청 농가 체험, 어린이 장보기 체험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과 함께 관광객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해 해남 로컬푸드를 알려나가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8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인 지역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해남 2030 푸드플랜'을 추진해 오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푸드플랜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가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와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윤규진 기자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10개월 만에 매출 20억을 달성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7월 20일 기준 20억의 매출 실적을 올리며, 월평균 2억원이 넘는 운영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고흥군, 폭염대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활동 총력

고흥군(군수 공영민) 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한 농작업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지원과 농업인 안전교육을 펼치고 있다.

여름철 농업인은 불볕더위에 야외와 시설하우스 등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온열질환에 걸리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고흥군은 이러한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에어냉각조끼를 더위에 취약한 시설하우스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게시설도 설치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고열 스트레스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한 농작업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교육을 함께 진행해, 평소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짓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하는 농작업 안전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유빈 기자

## 장흥군, '블루에너지 팜' 조성 업무협약

### 신재생에너지·스마트팜 조성 1.5조 원 규모

장흥군이 최근 1.5조원 규모의 '블루에너지 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SK에코플랜트 이왕재 BU대표, 현대일렉트릭 박상훈 BU대표, 교보와사 오주석 BU대표, 하이퓨얼셀 이형영 대표, 블루에너지팜 신현주 대표가 참석했다.

블루에너지 팜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팜(지능화 농업시스템)을 결합한 융복합산업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장흥군 관산을 삼산간척지 일대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유리온실을 조성을 골자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 열, CO2를 온실운영에 적절히 활용하는 사업이다.

군은 신재생에너지와 결합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해 지역 6차 산업 기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백두연 기자

지역 농업의 단지화, 규모화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단지 조성은 전문적인 기술결합을 위해서는 대기업 민간투자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흥군과 참여 기업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토지매입(임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업 6차 산업의 집약체인 신재생에너지 블루에너지 팜 조성을 통해 일자리창출은 물론 군 인구 늘리기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장흥군과 투자기업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두연 기자

## 완도, 해양바이오 기업체 유치에 전격음

완도군은 최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12월 말 준공될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의 스타트업 및 연구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상으로 '완도군 해양바이오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양바이오 관련 연구진과 쉐보타메디 등 30개 기업체의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설명회는 완도군과 협력하고 있는 프랑스 로스코프 연구소 필립 포탕 박사의 국제 R&D 협력 관계 설명 및 완도산 톱을 이용한 인지 개선,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후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투자 환경과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 설명, 기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완도산 톱의 인지 기능 개

선 및 치료 효과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과 다양한 R&D 사업 추진 상황 설명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군은 '톱'의 풍부한 파이토스테롤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재현성 검증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을 통해 톱 생산 어가의 소득 향상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박남영 기자

##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진도군이 3교(물가·금리·환율)시대에 적당히 싸고 질(質)이 좋으면서 가성비 좋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다.

군에 따르면 요식업, 이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업소 중 대표 품목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고 위생상태 등 현장심사를 통과한 16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다. 특히 착한 가격업소는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서 교부와 함께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확대하고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 보성군, 상반기 안전 의무 이행실태 점검

보성군은 최근 공중이용시설 및 사업장 등 상반기 중대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시설은 제암산자연휴양림, 보성군청사, 붓재, 보성국민체육센터, 절도사면 등 공중이용시설 28개소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뤄졌다.

김철우 보성군수도 주요 현장에 직접 나가 시설 및 종사자 안전관리를 확인했으며, ▲안전계획 수립, ▲안전교육 이수, ▲법적 안전 점검 시행 여부, ▲긴급상황 대처 방법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에 따라 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보성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중대재해·인명피해 ZERO'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보성군은 법 시행 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중대 재해 예방계획과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중수 기자

